

신예 선수들 과감한 기용·즐거이는 야구로 체질개선

TIGERS

결산(下) - 윌리엄스호 첫 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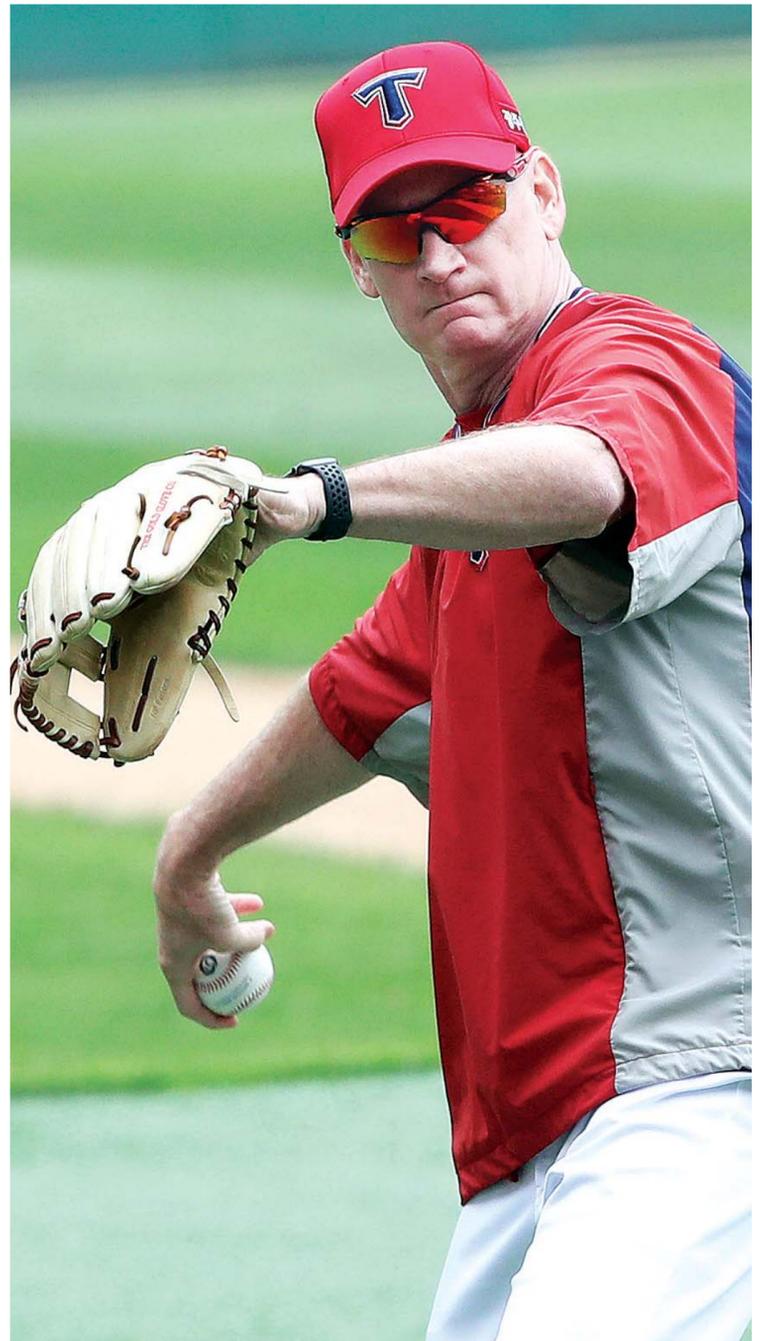
선수들에게 기회주며 무한 테스트 에너지인제이 등 신설 재미 '업' 투·타 줄부상에 성적 기대 못미쳐 마무리 캠프 지휘하며 내년 밑그림

조계현 단장, 재계약 관심 가을야구 진출 불발 아쉬움 영입자원 부진·내야 교통정리 '속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윌리엄스 감독의 첫 1년, 슝슝함으로 끝난 조계현 단장의 약속된 3년이다. 시즌 전 가장 주목을 받은 팀은 KIA였다. 역대급 이력의 맏 윌리엄스 감독이 타이거즈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에 오르면서 야구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윌리엄스 감독은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그라운드 안팎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시즌 중반에는 뜨거운 질주를 하면서 순위 싸움 '다크호스'로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낮은 리그와 선수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원하던 목표지점으로는 가지 못했다. 부상이 윌리엄스 감독을 괴롭혔다. 지난해 좌완 필승조를 담당하던 하준영과 임기준이 부상으로 없는 전력인 시즌, 이준영이 외롭게 좌완 불펜 역할을 했다. 가장 믿음직한 박준표와 전상현도 중요한 순간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김선빈은 세 차례나 같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올 시즌 85경기 출장에 그쳤다. 내야 비상 속 영입한 류지혁도 팀 적응이 끝나기도 전에 재활군이 됐고, 또 다른 부상으로 복귀에 실패했다. 외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던 이창진과 위기의 내야를 지탱하던 나주환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고민 많은 시즌을 보냈다. 브룩스의 예상치 못한 귀국도 5강 싸움의 큰 약재가 됐다. '경쟁'도 아쉬움이 됐다. 올 시즌 경쟁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힌 선수는 최원준이 유일하다. 김호령, 이창진과의 치열한 경쟁 속 최원준은 한 단계 성장하며 팬들을 웃게 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첫 시즌은 경쟁보다는 테스트 성격이 강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나지완, 박찬호, 유민상에게 풀타임을 맡겼다. 나지완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합격점은 받았지만 1루와 유격수는 물음표를 남겼다. 줄부상 속 3루의 확실한 자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윌리엄스 감독은 '와인투어', '타이거즈 에너지인제이' 등으로 야구의 재미를 넓혔다. 끝까지 가는 야구를 하며 선수단 체질도 바꿨다. 윌리엄스 감독의 2020시즌은 올 시즌 '경험'을 부여받은 신예 선수들의 2021시즌 성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귀국을 미루고 2년 연속 마무리 캠프를 지휘한다. 올 시즌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짜 판을 짤 전망이다.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같은 배를 탄 프런트, 현장과 구단을 아우르는 단장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2017년 우승 효과로 타이거즈 첫 선수 출신 단장에 올랐던 조계현 단장. 올 시즌은 KIA와 약속된 3년의 마지막해였다. 수석코치에서 단장으로 변신한 첫해 팀은 '임창용 논란'으로 뒤숭숭했다. 소통 부재로 내부 갈등을 키웠던 조 단장은 지난해에는 김기태 감독의 자진 사퇴로 흥역을 치렀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 시국에 강원도의 한 총선 캠프를 방문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올 시즌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하며 그라운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고, 시즌 전 영입한 홍상삼과 나주환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며 새 전력이 됐다. 하지만 KIA는 시즌 막판 뒷심 싸움에서 밀리면서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였다. 시즌 중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단행했던 트레이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영입 자원의 부진과 부상으로 3루와 불펜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내야 교통정리라는 숙제가 남았다. 공교롭게도 트레이드를 통해 KIA를 떠난 이들은 '가을잔치'의 꿈을 이뤘다. 장영석과의 트레이드로 키움으로 간 외야수 박준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팀의 리드오프 역할을 맡았다. 류지혁과 팀을 바꾼 두산 홍건희는 준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4일 포스트시즌을 시작했다. NC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하는 아웃카운트를 책임졌던 문경찬은 한국시리즈가 시작하는 17일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꽃범호, 퓨처스리그 총괄코치로 현장 복귀

KIA, 코칭스태프 보직 개편 윌리엄스 감독 1·2군 통합 관리

이범호가 KIA 타이거즈 퓨처스 총괄코치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KIA가 4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코칭스태프 보직을 개편했다. 퓨처스 선수단 감독제를 폐지하고 총괄코치 제도를 도입했다. 유망주 육성과 1군 가용자원 확보 등 맞춤형 선수 육성을 위한 시스템으로 윌리엄스 감독 산하에 퓨처스 총괄 코치를 두는 게 핵심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1군과 퓨처스 선수단을 통합 관리하면서 육성 책임까지 맡는다.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시즌 종료 후 후배 지도자들을 위해 옹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범호가 총괄 코치로 육성 시스템을 이끌게 된다. 지난해 선수 생활을 마감한 이범호 총괄코치는 일본 프로야구(NPB)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스프링캠프에서 코치 연수를 했다. 이와 함께 KIA는 퓨처스 선수단과 1군 사이의 선수 정보, 감독 지시 등을 조율하는 퓨처스 코디네이터를 신설했다. 앤서니 코치가 퓨처스

디네이터를 맡는다. 투수 코치 파트에도 변화가 있다. 투수 육성 능력이 뛰어난 서재용 코치가 퓨처스에서 유망주 육성을 책임진다. 지도자 경험이 풍부한 정명원 코치가 1군 투수 조련을 맡는다. 박정철 코치가 앤서니 코치 대신 1군 불펜 코치로 댈다. <2021년 코칭스태프 보직> ◆1군 ▲수석코치: 위터마이어 ▲타격코치: 송지만·최희섭 ▲투수코치: 정명원·박정철 ▲수비코치: 김민우·이현곤 ▲주루코치: 김종국 ▲배터리코치: 진갑용 ◆2군 ▲총괄코치: 이범호 ▲타격코치: 김선진, 서동욱, 윤해진 ▲투수코치: 서재용·류택현 ▲수비코치: 김민호·박기남 ▲주루코치: 정성훈 ▲배터리 코치: 김상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그린스타디움상'

프로축구연맹, 오늘 팬 프렌들리상 등 1~3차 결과 합산 종합상 발표



전남드래곤즈가 그린스타디움상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1·K리그2 19~27라운드 그라운드 관리상태를 평가해 3차 그린스타디움상 수상 구단을 선정했다. K리그1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최고의 그라운드로 뽑혀 수원 삼성에 상이 돌아갔다. K리그2에서는 광양축구전용구장을 안방으로 쓰는 전남이 그린스타디움상 수상자가 됐다. 광양축구전용구장은 포스코 협력사인 정원이 체계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팬 친화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구단에게 주어지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K리그1 대구FC와 K리그2 서울이랜드에게 돌아갔다. 대구는 해당 기간 대구시 아동들의 안전과 취약

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SAVE캠페인'을 선보였다. 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선수단 전원이 참여하는 랜선 팬미팅을 진행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는 지난 시즌 1차를 시작으로 이번 3차까지 6회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서울 이랜드는 경기장 안팎의 소식을 전하는 라이브성 콘텐츠를 강화해 팬들과 호흡했다. 또 송파구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서초구 축구협회 연영별 상비군에 유니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밀착활동도 펼쳤다. 한편 연맹은 올 시즌 팬 프렌들리 클럽상과 그린스타디움상의 1~3차 결과를 합산, 5일 열리는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다시 골 사냥 나선다

토트넘, 내일 유로파리그 루도고레츠와 조별리그 3차전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 행진을 멈춘 손흥민(28)이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호 골을 정조준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은 6일 오전 2시 55분 불가리아 라즈그라드의 루도고레츠 아레나에서 루도고레츠(불가리아)와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23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LASK(오스트리아)를 제압했던 토트넘은 일주일 뒤 2차전에서 앤트워프(벨기에)에 0-1로 져 조2위(승점 3)에 올랐다. 앤트워프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가 충격 패를 당한 토트넘은 조 최하위에 자리한 루도고레츠(승점 0)와 3차전에서 만회를 노린다.

손흥민(S), 해리 케인(K)과 9월 토트넘으로 돌아온 개러스 베일(B)로 이루어진 'KBS 트리오'가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손흥민이 득점 공동 1위(8골), 케인이 공격 포인트 1위(14개)를 달리는 가운데, 2일 정규리그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7라운드에서는 베일까지 복귀 골을 쏘아 올렸다. 다만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9경기에서 10골(정규리그 8골·유로파리그 예선 1골·본선 1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다. 유로파리그 앤트워프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브라이턴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해 후반 40분 교체될 때까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다. 정규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4경기 동안 이어온 연속골 사냥은 마무리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는다면 초반 '반짝 활약'에 그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안배를 위해 유로파리그 1, 2차전에서 그를 후반 교체 투입했다. 이달 8일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과 EPL 8라운드를 앞두고 있어 손흥민은 이번에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한 앤트워프 전 패배 뒤 모리뉴 감독이 "11명을 모두 교체하고 싶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선택은 매우 쉬워질 것"이라며 주전 멤버 위주로 팀을 꾸리겠다고 시사한 만큼 언제든 그라운드에 투입될 수 있다. 손흥민이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 유로파리그 3호 골이자 시즌 11호 골을 작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전남 이유현 'K리그2 26R' 베스트 11

안산과 홈 폐막전 무승부 견인... 21일 시즌 최종전서 4강 결정

전남드래곤즈의 이유현이 2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2020 K리그2 2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전남 이유현은 강윤성(제주), 마사(수원FC), 정우재(제주)와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유현은 지난 1일 안산그리너스와 홈 폐막전에서 팀의 0-0 무승부를 이끌었다. 전남은 승점을

보태면서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전남은 27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최종전을 통해 마지막 순위 싸움을 벌인다. 애초 경기는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최종전까지 순위 싸움을 하게 되는 3위 서울이랜드(승점 38), 4위 전남(승점 37), 5위 경남(승점



이유현 선수

36), 6위 대전(승점 36)이 21일 오후 3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26라운드 MVP는 제주 진성욱에게 돌아갔다. 진성욱은 1일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로 제주는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K리그2 우승을 확정, 2021시즌 K리그1으로 복귀한다. /김여울 기자 wool@